

# 유은혜 부총리,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 방문

## 교육활동보호 강화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8일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가 기획한 여러 행사 중 마지막으로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센터 방문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모여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교권침해 예방 교육 자료 개발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권부르미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당 학교로 찾아가 자문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센터 방문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모여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으로 부터 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6명의 학교 현장 교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권침해 실제 사례 및 교육활동보호 정책 수립 관련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교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경청했

다.정리 발언에서는 교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개선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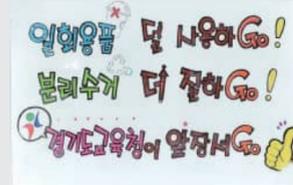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교육청 담당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더 높아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 에너지 절약 실천

###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독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도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을 세워 실천해왔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은 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해마다 계획을 세워 실천해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남·북부 청사와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는 기관·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운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사용, 공용차량 100% 환경친화 자동차 구입,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내온도 평균 겨울

18℃ 이하, 여름 28℃ 이상 유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교육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교챌린지'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고교챌린지는 지난 1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실천 운동으로 참가자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와 하지 않을 일 한 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고 기초실장은 “도교육청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내에서 휴대컵 사용, 손수건 사용하기 등 일상 속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교육청과 학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작은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 세종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본교섭 개최

### 노사 간 상생과 화합을 위한 첫걸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제1차 본교섭을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무)이 있다.

제1차 본교섭에 세종시교육청에서 최교진 교육감, 부교육감 등 10명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양현상, 이관무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교섭위원 소개 및 교섭대표위원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19년 단

체협약 이후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본교섭 이후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한 조합활동, 근무조건, 교육훈련 등 총 260개항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양현상, 이관무 위원장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적극적·공정적 협의를 통해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 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 공약사업 '순항중'

###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이행실적 점검...89.9% 달성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차츰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8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유관형) 회의를 열고 김지철 교육감의 56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 올해 목표대비 6.3%를 초과 달성했으며, 전체 임기 목표대비 89.9%의 추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책분야 별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혁신'분야 14개 사업의 추진율은 85.9%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11개 사업은 84.2% ▲'삶의 가치

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11개 사업은 84.9%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 공동체' 14개 사업은 102.2%로 목표치 초과 달성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6개 사업은 85.1%이다. 5대 정책 별 추진율은 모든 분야에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박동인 정책기획과장은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해는 임기 중 마지막 해인 만큼 공약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책임교육 3단계 안전망 구축

### '교실안-학교안-학교밖'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1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이후 초·중·고교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교실안-학교안-학교밖' 등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2021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 점검과 학습결손 여부를 파악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급 및 교과 담임교사가 학습부진 원인 및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 개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3단계 안전망'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교사' 48명을 학교에 배치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수해력 미해득 학생을 대상으로 1:1 개별화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낭독하기-글쓰기-셈하기 유창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다

정다감교실' 500학급을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 튜터 119명을 초·중·고 83교에 지원하고, 초·중 474교에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 및 3R's(읽기, 쓰기, 셈하기) 부진학생을 위한 '천천히 배우는 학생 프로그램'을 초·중 384교에 지원했으며, 수업 중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을 위한 선도학교 13교를 운영하고 있다.

3단계는 학교밖 지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시·군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교사 대상 연구-연수-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22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찾아가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종혁 유초등교육과장은 “단기적·단편적 지원이 아닌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초학력은 보장하고 학습격차는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매 기자

## 밀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공감 토크로 통하다!

### 학교급식 납품업체-학교 관계자 대상 청렴 자문단 회의 실시

밀양교육지원청(교육감 김정희)은 지난 18일 상반기 학교급식 업무개선과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학교급식 청렴 자문단(공감 토크) 회의'를 실시했다.

학교급식 청렴 자문단(공감 토크) 회의는 식재료 납품업체·학교 영양(교)사·행정실장·교육지원청 등

14여 명이 참석했으며, 학교급식 납품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및 불합리한 운영 사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역사사지 측면에서 공감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교육과 2020년 경남도교육청의 청렴 해



피플 결과 공유, 2021년 밀양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안내, 식재료 납품 관련 학교·업체 간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김정희 교육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분 중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년째 원격·등교수업 실시로 납품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납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미희 기자

# 사랑은 나이를 바꾼다

현산은 제 2시집 『사랑은 나이를 바꾼다』에서 오래전에 피고 진 사랑조차 다시 활짝 꽃 피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랑을 노래한 시는 많지만, 현산의 시가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쁜 일상에서 길어 올린 소탈한 시어로 젊음을 되돌릴 수 없어 상심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열정을 지피게 하기 때문이다.

저자 현산 / 가격: 15,000원

시집 구입  
에스24/알라딘 / 인터넷 교보문고 / 인터파크 도서 / 도서11번가